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비빈곤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 시 혜 자 · 송 승 민* · 이 유 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Poverty and Comparative Groups

Park, Siheaja · Song, Seung Min* · Lee, Yoo Hyu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 of Suwon, Hwaseong, Korea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Suwon, Hwaseong, Korea*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Univ. of Suwon, Hwaseong, Korea**

ABSTRACT

The study examined and compared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7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d benefited from the free meal project and 97 students as the comparative group who did not receive the benefit.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α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academic scores of the comparative group were statistically higher than those of children in the poverty group in Korean language, mathematics, science, and sociology. Also, self-esteem of children in the poverty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mparative group's in terms of leadership and popularity. The poverty group also showed lower self-efficacy in self-regulated efficacy tasks.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different sub-factor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predi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poverty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s.

Key words: poverty children,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self-efficacy

I. 서론

인종적으로 소수자이거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빈곤과 같은 가족 내 위험 요인들을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것은 학교생활 성공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uchinal et al. 2006; Gutman et al. 2002; Luster & MacAdoo 1994; Sektnan et al. 2010). 이러한 위험 요인들 중에서 빈곤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이론과 가족과정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인 투자가 크게 작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 의식주에 밀려 이러한 투자를 하기 힘들고, 불안한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에 대한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구인회 2003; 구인회 등 2009; 김광혁 2010; 이현송 2008; Becker & Tomes 1986).

빈곤아동이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은 최저생계비에 의해 계측되므로 빈곤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빈곤가족아동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아동, 빈곤한부모 가족 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원 1999). 빈곤가정의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 정서적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김광혁 2006).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항상 가정이 경제적인 긴장상태에 있으므로 불안한 부모의 심리가 전이되며, 이것이 가족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로 인해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으로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및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구인회 등 2009; 이경혜 등 2006; Brooks-Gun & Duncan 1997; Eamon 2001; Guo & Haris 2000). 가족조직, 가족구성원의 수, 가족 문화 등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가족조직과 아동의 인성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일환 1987; 김제한 1984).

아동은 학령기에 학교라는 구속력 있는 집단에서 적응하게 되는 데, 이 때 적응력이 높은 아동은 학업성취도, 사회성, 대인관계 등 여러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한경택 2002). 이렇게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해내는 아이가 있는 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자신이 해야 하는 과제를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성취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아동의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조희숙 2007), 이때 내적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개인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힘의 원천이다.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우울, 정서 등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대인관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홍승표 2008), 특히 학습에 관한 성취와 성공이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Purky 1970; Freih Owayed 2005)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박미령 1992; Gouldner 1978) 이들 연구에서 빈곤아동의 교육 및 오락 등 생활전반에의 제약과 저소득층 부모가 보이는 권위주의적 태도, 애정의 부재 등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Bandura(1977)는 행동을 수행하여 성취할 때 가질 수 있는 기대로 효능기대(efficacy expectancy)와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가 있다고 구별하였다. 효능기대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결과기대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예측으로 어떤 행동은 어떤 결과를 수반 할 것이라는 평가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기종(2000)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학습의욕이 높아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도전하여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연결된다고 하였으며, 박영옥(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혀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루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기회와 주변이 개입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시연·박은미 2009).

아동의 학업성적은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며, 가족빈곤과 행후 아동의 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대표적 지표이다(구인회 2003; Brooks-Gun & Duncan 1997; Corcoran 2000). 아동의 학습이나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기회나 경험, 그리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 등은 가족의 수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학습기회나 경험, 환경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Duncan et al. 1994; Guo & Harris 2000; Korenman et al. 1995; Yeung et al. 2002).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는데, 김미숙·배화옥(2007)의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자녀는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으며, 빈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간이 긴 경우에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제한된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따른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서구에서 먼저 진행된 빈곤아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 시도된 빈곤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구의 연구결과와 같이 빈곤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학업 성취, 비행 등과 연관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구인회 2003; 김광혁 2005; 김재엽·양혜원 1998; 박현선 1999).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 무상급식 수혜여부로 정하여, 무상급식 대상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대상아동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는 꾸준히 되고 있으나 자아존중과 자기효능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비빈곤아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2.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용인지역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들로 무상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과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2009년 1학기에 실시하였다. 무상급식 대상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40명, 한부모 가정이 19명, 차상위계층이 38명이었다. 조사에 응답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낙인감 등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에 무상급식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아동의 학급에 해당 아동 수와 동일하게 비대상 아동을 임의 추출 후 해당 학교 영양(교)사에게 학기 초에 제출한 통합지원 서류의 기록을 참조하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기록하고, 성적을 열람하여 기록하였다. 성적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기록하였다. 설문은 총 220부 배부하여 198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은 연구대상의 학년과 성별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N=194			
	Comparative group	Poor children	Total
	N(%)	N(%)	
Grade	4th	16	18
	5th	39	42
	6th	42	37
Total	97(50%)	97(50%)	194(100%)
Gender	boy	48	51
	girl	49	46
Total	97(50%)	97(%)	194(100%)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Coopersmith (1967)의 Self-Esteem Inventory(SEI)를 강종구 (1986)가 번역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이 있다. 자기비하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 요인도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지도력과 인기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매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기주장과 불안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25개 문항 중에서 2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1개를 추가하여 23개의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제거된 문항들은 자기비하 요인에 속해 있는 ‘나는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와 ‘나는 매사를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이다. 이 문항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기 어렵거나 요인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삭제하고, 대신에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요인에 속한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는 같은 요인에 속한 다른 문항들의 내용이 매우 비슷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혼동을 주고 신뢰도

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제거하였다.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47이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비하는 4문항으로 .539, 타인과의 관계는 6문항으로 .499, 지도력과 인기는 6문항으로 .648, 자기주장과 불안은 7문항으로 .639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별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 총 24 문항 중에서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문항은 초등학생이 응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고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실 또는 신념의 전도라고 축소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으며(Sherer et al. 1982),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효능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과제 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노순점 2005).

본 측정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계수는 0.823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559, 자기조절 효능감은 12문항으로 .897, 과제난이도 선호는 5문항으로 .468로 나타났다.

3)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성적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료의 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기술통계, t 검정,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정을 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 비교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에 학업 성취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국어(t=-5.47, p<.01), 수학(t=-6.46, p<.01), 사회(t=-4.99, p<.01), 과학(t=-5.52, p<.01) 등 개별 과목 평균이 두 그룹 사이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과목 평균 점수(t=-6.52, p<.01)도 같은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2는 t-검증을 통해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과목별 학업 성취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2. Comparison of scores between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t
Korean language	72.84	84.73	-5.47**
Math	63.65	82.79	-6.46**
Sociology	68.42	82.34	-4.99**
Science	70.06	84.82	-5.52**
Mean	68.85	83.77	-6.52**

*p<.05, **p<.01, ***p<.001

2.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 비교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각 요인이나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비빈곤아동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level between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t
Self-contempt	3.45	3.47	-0.19
Relationships with others	3.69	3.75	-0.62
Leadership and popularity	3.19	3.35	-1.71
Self-assertion and uneasiness	3.39	3.53	-1.55
Total	3.42	3.53	-1.34

3.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자기효능감 비교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달리 자기효능감은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감 요인(t=.71)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자기조절효능감(t=-2.88,

Table 4. Comparison of self-efficacy level between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t
Self-confidence	2.74	2.67	0.71
Self-regulated efficacy	3.09	3.39	-2.88**
Difficulty level adjustment of the assignment	3.18	3.39	-2.12*
Total	3.02	3.20	-2.58**

*p<.05, **p<.01

p<.01), 과제난이도선호 요인($t=-2.12, p<.05$)과 자기효능감 전체($t=-2.58, p<.01$)에서는 비빈곤아동이 빈곤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이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두 그룹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빈곤아동의 경우 자기주장과 불안($\beta=7.089$)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영향이 크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비빈곤아동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beta=5.672, p<.05$)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e of self-esteem on scores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β	β
	(t)	(t)
Constant	42.691** (3.67)	61.604** (7.54)
Self-contempt	5.558 (1.46)	-3.188 (-1.49)
Relationships with others	-3.798 (-1.15)	5.672* (2.24)
Leadership and popularity	-0.943 (-0.26)	4.359 (1.75)
Self-assertion and uneasiness	7.089 (1.78)	-0.746 (-0.26)
R ²	0.138	0.121
F	3.672**	3.170*

*p<.05, **p<.01

5.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6는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그룹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빈곤아동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beta=7.972, p<.05$)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비빈곤아동의 경우 자신감($\beta=-3.819, p<.05$)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Table 6.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scores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β	β
	(t)	(t)
Constant	47.595** (3.65)	93.279** (11.29)
Self-confidence	-3.049 (-0.99)	-3.819* (-2.14)
Self-regulated efficacy	7.972* (2.25)	3.110 (1.38)
Difficulty level adjustment of the assignment	1.560 (0.44)	-2.904 (-1.20)
R ²	0.129	0.098
F	4.606**	3.350*

*p<.05,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빈곤 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들 중에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아동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4개 교과목에서 비빈곤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평균 차이가 가장 많은 과목은 수학 과목으로 나타났으며, 4개 교과목의 평균 점수 차이는 14.93이었다. 빈곤 경험이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밝혀져 왔다(구인회 2003; 이정혜 등 2006; 차정희, 2002). 이정혜 등(2006)의 중단연구에서 부모의 빈곤은 학령초기인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차정희(2002)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수입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학업성취도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가정의 빈곤과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빈곤가정 아동들을 위한 학습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인회(2003)에 의하면 가족소득과 빈곤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진학고교유형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학력저하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심화되어질 수 있고, 학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령 초기부터의 적극적인 학습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빈곤 아동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현송(2008)의 연구에서도 빈곤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비빈곤아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빈곤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에서 빈곤 아동과 비빈곤아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이현송(2008)의 연구결과는 일부분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지도력과 인기에서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

들보다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며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김진미 2005; 백정재 1996)와 일부분 일치한다. Garnezy(1985)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아동을 불우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 요인 중에서 비교 집단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리더십이 있는 아동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빈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비빈곤아동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 중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김성연 2005).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차정희(2002)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 가정 어머니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각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우월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빈곤 가정의 부모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빈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낮아진다고 연구들은 보고한다(김성연 2005; 노호은·박경자 2001; 이동영 1997). 본 연구결과에서도 빈곤 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빈곤 아동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적고 이로 인해서 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동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보고한다(권정운·장영희 2007; 도현심 등 2009). 이와 같이 유아기부터 사교육에 대한 노출 정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교육 뿐 아니라 교육적 투자와 지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으므로 빈곤 아동은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족하고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빈곤아동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계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선행 연구들도 이에 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 연구들(이선희 2009; 차정희 2002)은 빈곤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계은(2010)과 이경희(2010)는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반면에 빈곤아동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은·이주리 2009)에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인과관계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외국 연구들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aummeister et al. 2003).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을 세분화 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그룹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아동은 자기조절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빈곤아동은 자신감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초

등학교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지역에 따라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학력차이 및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에 따라 빈곤 가정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가 청소년 및 성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측정도구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요인별 신뢰도가 일부 요인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낮은 신뢰도를 보인 요인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하위요인의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문항의 보완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의 학력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일반 가정의 비교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빈곤 아동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학습 지원 및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루어져서 빈곤 가정 아동의 학력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중구(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도가 직업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

- 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3), 5-32.
- 구인회 · 박현선 · 정익중 · 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중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권정윤 · 장영희(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87-99.
- 김광혁(2005) 가족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541-548.
- 김광혁(2006)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8(4), 265-289.
- 김광혁(2010)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 아동 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2), 35-65.
- 김미숙 ·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3-26.
- 김성연(2005)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양부모 가족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학 11(2), 1-19.
- 김아영 · 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통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51-64.
- 김일환(1987)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성 측정적 지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 양혜원(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37-62.
- 김제한(1984) 가정환경과 자녀의 지능 및 인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미(2005)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순점(200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호은 · 박경자(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55-71.
- 도현심 · 박보경 · 김수진 · 조숙인(2009)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30(4), 135-153.
- 박계은(2010)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학습유형, 성취목표와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중(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서울:하우.
- 박영옥(1999) 자기효능감 및 학습적응특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회지 8(1), 35-58.
- 백정재(1996)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 · LeBlanc JC · 심희옥(2006) 빈곤아동의 학업수행 부진 발생요인의 예측과 조기중재모형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175-196.
- 이경은 · 이주리(2009)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통시적 상호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1), 1-9.
- 이경희(2010)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9)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및 학교생활 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연 · 박은미(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41-159.
- 이현송(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관계.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104-161.
- 이혜원(1999)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의 평가. 한국아동복지학회지 8(1), 79-102.
- 조희숙(2007) 저소득층 초등학교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 및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희(2002) 빈곤아동 학업성취지향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택(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의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표(2008) 사회적 유능에 따른 아동 자아개념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7(2), 311-32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hysi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cker G, Tomes N(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1-39.
- Baummeister RF, Campbell JD, Krueger JI, Vohs KD(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rooks-Gunn J, Duncan G(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Burchinal M, Roberts JE, Zeisel SA, Hennon E, Hooper S(2006) Social risk and protective child, parenting, and child care factors in early elementary school yea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1), 79-113.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
- Corcoran M(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21(2), 16-20.
- Duncan GJ, Brooks-Gunn J, Klebanov PK(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Eamon MK(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motional development - An ecological systems approach, *Social Work* 46(3), 256-266.
- Freih OE(2005)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anxiety, self-esteem, optimism, and pessimism in Kuwaiti studen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3(1), 95-104.
- Garnezy N(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New York: Elsevier Science.
- Gouldner H(1978) *Teachers' pets, troublemakers, and nobodie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Guo G, Harris KM(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 431-447.
- Gutman LM, Sameroff AS, Eccles JS(2002)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frican-American student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examination of multiple risk, promotive,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 367-399.
- Korenman S, Miller JE, Sjaastad LE(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 127-151.
- Luster T, McAdoo HP(1994) Factors related to the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young African-Americ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1080 - 1094.
- Purkey WW(1970)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New York: Prentice Hall.
- Sektman M, McClelland MM, Acock AC, Morrison FJ(2010) Early family risk, behavioral regulation,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4), 464-479.
- Sherer M, Maddux JE, Merca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Yeung WJ, Linver MR, Brooks-Gunn J(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 1861-1879.